



- : 8991 (Class A)
 - :
 - : 2005.10.20 ~ 2006.01.19

1.

	2004 10 20		12
	()		S K

주식편입비 60% 이상의 주식형 펀드. 배당주 위주의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2. (:)

	308,411,599,255		10,139,493,254
	298,272,106,001	가	1,095.98

3. (:)

	129,064,168,066	207,601,947,400	64,514,319,532	272,151,795,934
	129,064,168,066	207,601,947,400	64,514,319,532	272,151,795,934

4. (: ,%)

		299,721.16			8,690.44	308,411.6
		97.18			2.82	
	:8690.44					

5. (:2006.01.19)

6. (: ,)

CJ1	5,010	227.97			
LG	62,620	1,077.04			
	65,500	1,733.67			
	47,170	862.19			
	150,530	1,400.41			
1	3,470	72.87			
	7,130	130.12	10,000	188.00	0.3
	1,690	48.33			
	3,900	180.46			
	6,971	1,478.42			
	40	0.58			
LG	162,490	2,046.12			
1	31,150	307.88			
SK	53,380	2,809.16			
	230,100	3,121.80			
	47,520	542.76			
1	44,000	2,302.74			
3 B	7,420	378.39			
POSCO	14,416	3,064.18			
	78	12.01			
	78,320	965.84			
	7,485	4,385.63			



1	40,280	429.45	19,708	225.37	0.11
LS	33,110	969.86			
	52,930	429.71	1,420	12.10	0.01
GS	31,230	1,427.24	6,628	311.52	0.1
	5,570	133.97			
	30,000	78.70			
	44,180	541.21			
	32,290	2,252.44			
	2,540	55.63			
1	22,800	294.76			
LG	83,730	2,320.35			
	28,230	268.88			
	740	16.47			
가	14,860	423.30			
	94,980	3,234.77			
	88,420	331.85			
SK	17,493	3,302.56			
E1	10,510	450.50			
SK가	1,110	43.18			
	137,500	1,396.33			
WISCOM	12,290	62.46			
	77,340	1,022.45	14,260	195.36	0.06
KT	80,720	3,427.18			
	103,490	625.86			
KT&G	56,480	2,446.29			
	122,340	118.64	397,278	654.36	0.97
G2R	116,961	1,968.54			
가	78,780	2,781.58			
	21,760	183.85			
	117,046	559.94			
LG	10,391	529.94			
LG 1	47,240	1,684.39			
	76,070	1,299.73	13,680	236.66	0.09
	33,995	856.07			
	5,010	156.24			
	243,205	1,895.44			
LG 1	36,390	1,619.85			
STX	156,370	2,895.83			
	29,820	204.76			
	67,640	1,094.55			
	156,310	1,135.59			
GS	112,340	2,715.72			
GS()	7,650	143.82			
		74,978		1,823	

* = 가 /

7.

*운용성과

연초 1400포인트를 넘어섰던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KOSPI는 지난 3개월 동안 18.0% 상승하였습니다. 펀드는 9.6% 상승하여 KOSPI 상승폭의 절반 남짓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66.2%에 이르러 64.2% 상승한 KOSPI와 비슷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목표로 투자하는 배당펀드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펀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일 펀드이므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등락보다는 펀드의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펀드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시장지수 상승폭의 60% 수준의 상승, 하락장에서는 시장지수 하락폭의 40% 수준의 하락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주식편입비율은 92.68%로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주들을 추가로 매수하여 편입비율을 94%까지 높였으며 예상배당이 반영되면서 편입비는 다시 소폭 낮아진 것입니다.

*향후운용계획



최근 배당펀드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말에 배당락이 되었지만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몇 달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 펀드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답변) 펀드의 경우에는 배당락 당일에 펀드에 예상 배당금을 미수배당금으로서 회계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배당락 당일에 배당을 수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 배당은 실제배당 수령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배당이 확정되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별회사들의 예상실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배당 수령금액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이전에는 배당펀드의 수익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주식형 펀드 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답변) 작년 한해의 높은 수익율만을 보시고 배당펀드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지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당펀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율을 목표로 하는 보수적인 펀드입니다. 즉 일반 주식형 상품은 위험도가 높아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예금 상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배당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펀드 목표에 맞게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배당펀드들은 시장을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그 동안 크게 저평가 되어 있던 배당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배당펀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며 작년과 같은 고수익은 저희가 그 동안 이런 관점에서 저평가된 주식들에 대해 몇 년씩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배당펀드에 투자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정적인 수익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 신영마라톤주식형 펀드를 권해드립니다.

(질문) 배당 펀드는 시장이 하락해도 더 적게 빠진다던데 최근에는 어떤 날은 KOSPI 보다도 더 많이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한다면 오히려 배당펀드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시기적으로 1~2월은 배당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배당락 이후의 이익 실현으로 인해 배당주들에 대한 매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 이미 배당락 이전에도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을 실현하고자 움직임 때문에 배당주들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약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배당주 펀드에 대한 환매도 꽤 늘어났었고 배당주들이 연말 연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기는 배당주를 1년 중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배당투자에는 적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락 이후 약세를 보이는 배당주들은 대체로 2월이 지나면서 다시 배당락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당주의 약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배당펀드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하루 하루만 본다면 배당펀드들이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기간을 늘여서 본다면 배당주들은 분명히 하락 장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주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시가 배당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배당주 약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더라도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운용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1~2개월의 기간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투자에 임하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배당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펀드의 주식편입비는 점차 최고편입비에 근접하게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근래에 찾아 보기 힘든 큰 폭의 하락을 보여 불안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식시장은 기대수익율은 낮게 잡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년 반에 걸쳐 주식시장이 두배 가까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메리트는 별로 남아있지 않으며 앞으로는 경기회복과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년 반만에 7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지금 12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주식은 이제 "현저히" 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리스크를 감당한다면 적절한 수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기대수익율은 연평균 10~15%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당펀드는 매우



보수적인 펀드로서 기대수익율은 이 보다 좀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저희의 투자철학과 투자전략은 변함 없습니다. 언제나 일관된 자세로 배당수익률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우량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저평가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변화에 개의치 않고 이러한 자세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희의 성과가 놀라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며 불만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투자목표와 투자철학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장기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성실히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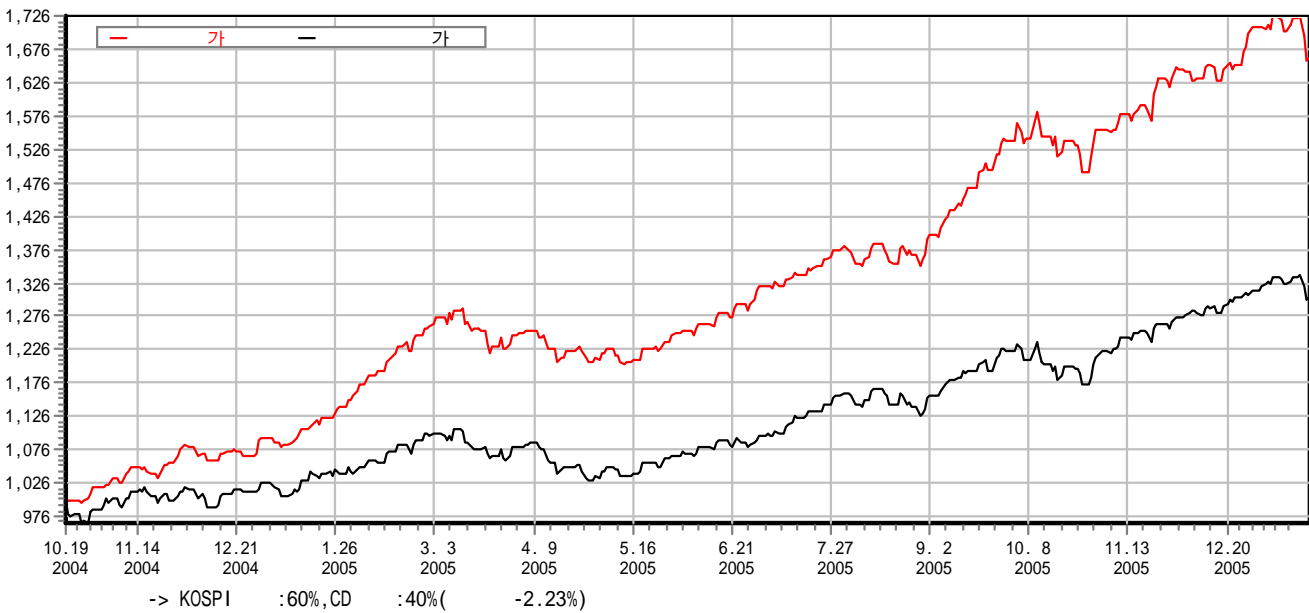
		가					
				502.9			106.5
				24,500.6			51.1

* : , / () , , .

- (:%)

	1	3	6	1	
	0.91	9.60	23.40	48.57	66.18

- 가 가



8.

			(9 6)	
43	2002 / / 1	2004 / / 1		99010120004
	2005 / 가			
35	(5)	(1 7)		01010120017
34	(6 8)			00010120009
32	(9)	(5 10)		00010120012
30	(2 1)			05010120028
32	(7)	(5)		01010120020
	(4 10)			



9. 가 (: ,)

1	3,470	73	2005.11.03
---	-------	----	------------

10. ()

()	가	.
-----	---	---

11. (:)

()			

12. ()

				()	
가					

13.

- . www.syfund.co.kr (:) .